



5면

자립추모공원, 추모의 길다시 열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음 3월 5일) 제395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메가특구 '기대감'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회의 현대차그룹 투자 협약 이행 상황 점검, 정부 차원 논의 김 총리, "AI·자동차·에너지·농생명 결합 실험 시작"

"최초의 실험, 실제 시도를 새만금에서 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새만금 메가특구를 언급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에 대한 조속한 이행은 물론, 새만금에 대한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의 도약에 기대감이 나온다.

(권현진 3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새만금위원회, 전북도, 현대차그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2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규제개혁 논의와 연계해 새만금을 메가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무인차,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합리화하는 메가특구를 해야 한다"면서 "최초의 실험을 새만금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낙후했던 지역에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AI, 자동차, 에너지, 농생명 산업이 결합되는 실험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도하는 국토 대전환의 첫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19일 전북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전북을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강연에서 전북이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있어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신산업을 통한 전북 경제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 △새만금 △피지컬AI △그린바이오 세 분야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첨단산업 실증을 골자로 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구상이 지난해 9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단순히 개별 기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TF 회의를 계기로 새만금이 미래산업 핵심 거점이자 리미트까지 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겠다는 방침이다.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현대차그룹의 투자협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오늘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조속한 현대자동차 그룹 투자 지원은 물론, 새만금과 전북의 대혁신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일 전주 혁신체육관에서 열린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함께 누리는 봄날

전북자치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000여명 참여 속 공감의 장 마련

맞춤형 복지 확대... 삶의 질 향상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전주 혁신체육관에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장애인의 날 의미를 함께 나눴다.

식전 행사로 초대가수와 하모니카 공연이 진행됐고, 본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과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60명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장애인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정기저음을 펼쳐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행사장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체

험, 보조기기 전시·점검, 장애인생 산품 전시·판매, 생활체육 체험 등 다양한 복지 전시·체험 부스가 마련돼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전북의 등록장애인은 12만7,000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총 114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342억 원이 증가한 총 3,691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돌봄과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과 지역장애아동지원

센터 운영 등을 통해 권리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확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고용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자립생 활지원센터 확충과 장애인종합지원 센터 운영 등 교육, 훈련, 고용, 돌봄이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박경노 전북특별자치도차세대장애인 협회 회장은 "장애인은 사회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의 장벽을 함께 허물고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당연한 일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지는 포용적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민 안전망 강화... 도, 2026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6월 19일까지 도내 주요 생활밀접시설 1449곳 대상 실태 점검

민관합동·전문장비 활용... 주민점검제 운영·자율점검포 배포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생활밀접형 주요 시설 1,449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첫날에는 행정안전부와의 영상 회의에 이어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재난안전국장이 참석한 대책 회의를 열고 올해 점검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고 사례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55개 시설 유형, 총

1,4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량, 어린이집, 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 숙박시설, 국가유신 어린이놀이시설, 공장시설 등으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민생 밀접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토목·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가스누출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 참여 기반의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점검 신청제'를 운영한다. 도민 누구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공유된다.

또한 가정과 점포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포를 배포하고,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택립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생활 속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황사 국내 유입... 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3시 30분께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도내 미세먼지(PM-10) 농도가 '배우나쁨' 수준(일 평균 150㎍/㎥ 초과)으로 예보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도는 황사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14개 시군 및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와 함께 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실외 수업 및 야외활동 자제, 어린이집·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 조치 강화 등 도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을 당부했다.

도는 특히 황사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등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순택 도 환경산업국장은 "황사 영향이 본격화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2026. 4. 24. (금) - 26. (일)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일원